

.....
토론 자료

사랑과 생명의 관점에서 본 성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33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사회교육원

6.7
16사

.00004338

00

.....
토론 자료

사랑과 생명의 관점에서 본 성

사랑의 성

윤 알 현 이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사랑의 성

윤 양 현 이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엄마, 섹스가 뭐게?”

“뭐?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어? 응? 거짓말 하면 혼날 줄 알아, 빨리 말해 봐. 누가 그런 말 가르쳐 주든?”

“어? 엄마 왜 그래? 섹스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래. 여기 가정 환경 조사서에 성별이라고 있잖아, 이게 영어로 섹스래.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

국민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느닷없이 ‘섹스’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으로 오히려 아이에게 의혹을 갖게 했다는 어느 엄마의 고백이다.

어디 이 엄마 뿐이겠는가? 우리는 ‘성’이란 단어만 들어도 ‘섹스’를 연상하며 이때 ‘섹스’는 이 엄마처럼 ‘남녀의 성관계’로 인식해 왔다. 우리가 남녀의 성별을 의미하는 ‘sex’를 남녀의 성관계로 통용해 온 것은 우리의 성문화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즉 우리 사회는 남녀관계를 성관계(sexual intercourse)와 결부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이상한 눈길과 부정적인 반응만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성개념이 성교 또는 성행위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연인사이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관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신이 정말 싫어진다”고 고백하는 어느 대학생 역시 성교 중심의 성문화에서 자란 피해자이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성폭력의 증가도 성교 중심적 성문화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것은 남성의 성기 중심적 성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도대체 남성 성기 중심적 성문화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러한 성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아 왔으며(사회화 과정), 그 교육의 결과 우리는 남녀관계에서 어떤 피해를 당해 왔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1.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신교육을 받았다는 요즘 부모들 중에도 아직까지 아들의 성기를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여겨 버젓이 노출시킨 채 백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일잡이 딸의 성기를 노출시킨 사진은 볼 수 없다. 사진은커녕 잠시나마 기저귀가 빠져 있어도 “보기 흉하니 빨리 입히라”며 매우 민망해 한다.

그렇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의 성기는 자랑스럽고 부러운 것으로 여자의 성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주입되었다. 아들에게 “남자는 도둑질만 빼놓고 다 해봐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내몰았고 딸에게 “여자가 해지기 전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딜 짹짹거리며 쏘다니느냐?”며 집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런 가정문화

속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정확히 말해 성기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쭐하게 자란 남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외도나 매춘행위 등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부추긴다. 반면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눅들어 자란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순결과 정절 등 합법적인 성행위만을 강요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유지시켜 온 성 이중규범의 기본 틀이며 이는 남성의 성기 중심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간의 합법적인 성은 결혼제도 안에 있다. 그러나 남자는 결혼제도 안에서는 도덕적인 가장과 동시에 결혼제도 밖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혼전 혼외 성관계나 매매춘으로 얼마든지 부도덕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자는 결혼제도 안에서는 정숙한 여성, 결혼제도 밖에서는 순결한 여성이어야만 하며 이를 어기고 부도덕해졌을 경우 타락한 여성으로 위치지어진다. 즉 남자는 도덕과 부도덕한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데 반해 여자는 도덕한 영역(공식영역 : 결혼, 정숙한 아내, 순결한 여자)에서 부도덕한 영역(비공식영역 : 매춘여성, 타락한 여성, 걸레, 버린 음)으로 향하는 길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 이중규범은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련의 체계 속에서 남자를 우월한 자로, 여자를 열등한 자로 차별화하는 성문화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성 이중규범은 우리 삶의 전반에 모세혈관처럼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성의 각본'을 만들어 내면서 줄곧 재생산시켜 간다.

우리가 10대, 20대를 살아가면서 각 연령 때마다 지니게 되는 개인적인 다양한 성인식이나 성행동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성

의 각본을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어럽사리 손을 잡고 나서부터는 키스할 기회만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대학 2년생,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나의 성지식을 과거가 많은 여자로 일치시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는 25세 미혼여성, “남자의 성욕은 본능이니 항상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31세 미혼남성, “부부관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닌데다 항상 남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늘 임신될까 불안하다. 그래서 어느 날 콘돔을 사다 놓았더니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자존심도 상하고… 그 때부터 나는 콘돔을 사다 놓지 않는다”는 34세의 주부, 이들의 성인식이나 성행위는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 “성은 남자가 주도하는 것”, “여자는 성에 대해 모를수록 여자답고(순결하고) 남자는 많이 알수록 남자답다(능력있다)”, “여자의 과거는 죄악이고 남자의 과거는 능력이다” 등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중규범적 성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 각본의 뿌리는 “남자의 성욕은 본능”이라는 믿음체계 안에 있다. 식욕이 본능이듯이 성욕 또한 본능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곧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식욕을 느낀다고 장발잔이 되지 않듯이 성욕을 느낀다고 강간범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치 않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많은 남성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남자의 성욕 역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욕구라는 것

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느낄 것이다.

성에 대해 바람직한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란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남성을 충동에 지배당하는 '늑대'로 비인격화하지 않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킬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강요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에서 아편이 아니라 누룩의 역할을 하는 몸의 대화로서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성문화는 사랑하는 남녀 모두가 살맛나는 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2. 어린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흔히 우리는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말한다. 물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 받은 경험은 역사적으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성지식들을 갖고 있다. 이것은 비공식 통로를 통해 개인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는 수준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즉 다양한 삶에 모세혈관처럼 번져 있는 성이중규범의 각본들을 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흡수한 것들이므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까지가 올바른 지식인지 분별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교육을 받아왔다.

더더욱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 우리는 엄마를 쫓아 눈 눈

눈, 코 코 코를 되풀이해가며 열심히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는 우리 몸 모든 곳의 명칭을 가르쳐 주진 않았다. 특히 성기의 명칭은 가르쳐야 할 곳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 엄마도 그렇게 배웠으므로, 역사적으로 성기는 명칭에서부터 상실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일한 성기 명칭으로 '고추'와 '참지'는 그나마도 남자의 성기이다. 백일사진의 남녀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여자가 자기 몸의 일부인 성기에 관한 한 이름조차 상실당한 채 살아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름은 곧 관심이며 자아이다. 이름 없음은 무관심이며 자존감 상실이다.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간에 평소에 성기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 외면해야 했고 무관심해야 했다면 그 성기는 이미 나의 존재라기 보다는 '누구를 위해 남겨 놓은 존재'에 불과하며 그곳에 나의 자존은 이미 상실되어 있다는데 심각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데다 그 순결의 개념이 '한 남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성기'로 정의되는 남자의 성기 중심적 성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많은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고' '줘버리기'까지 하면서 자기 몸의 주인되기를 포기해 왔던 것이며 결국 '당하고야 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남성들은 '빼앗는' 위치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의 각본처럼 잘못된 사랑의 각본에 따라 본의 아니게 '빼앗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일부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지만 매우 희망적인 것은 사랑과 성

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남자에겐 사랑과 성이 분리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남성들에게 ‘사랑 없는 성’의 경험을 조장시켜 왔지만 동시에 그러한 성의 사회적 강요 속에서 남성들은 자기혐오 내지는 자기 분열증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정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의 쾌락을 추구한다. 그리고 쾌락의 의미는 여자와 남자에게 매우 다르다.

3. 남녀 모두를 사랑의 낙오자로 만드는 성통념, 성행위

여자의 성은 임신, 출산과 바로 연결된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성관계에서 남자는 성적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남자에게 성관계는 그 자체로서 종결되지만 여자에게 성관계는 임신과 출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곧 여자에게 성관계는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을 제공해 준다. 남녀에게 성의 의미가 이처럼 어긋나 있는 것은 생물학적 이유(여자만이 임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오직 그 여자만을 사랑한다”는 27세의 미혼 남성은 “임신은 여자가 하는 것이니까 피임은 당연히 여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남편들조차 원치 않는 임신을 ‘아내 탓’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는 아내가 몇번 낙태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연인이 또 이러한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온전치 못한 사랑의 진행은 바로 남녀간의 성에 대한 어긋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남자 중심의 종결적 성으로 진행시키는 데서도 얼마든지 비롯된다. 여자들 스스로 “남자(또는 남편)에게 피임을 요구하면 밝히는 여자로 오해 받을까 봐 항상 불안함을 감수하고” 성관계를 하는가 하면 “임신한 것을 알면 나만 칠칠치 못한 여자가 되니까 남편 몰래 낙태”를 하기도 하는데 여자들의 이러한 태도 역시 ‘함께 하는 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자 중심의 성’으로 길들여진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여자만이 임신을 하는 생물학적 정자의 바탕 위에서 임신과 연결되는 출산 피임 낙태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법론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보로소 ‘함께 즐기는 성’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사랑을 위한 성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남녀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 규범을 가지고 있듯이 사랑의 문화 역시 남녀에게 각기 다른 사랑을 만들어 왔다. 오랫동안 사랑하던 남녀가 헤어진 경우 그 여자는 ‘과거있는’ 여자가 되는데 반해 그 남자는 ‘능력있는’ 남자가 될 수 있다. 남자는 사랑 없이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여자에게 성과 사랑과 결혼은 분리시키려 하지 않는다. 남자에게 사랑은 인생의 일부이고 여자에게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도록 키웠다. 이성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남자는 남자다운 남자로 평가받지만 이성에 대해 여자의 솔직한 욕구 표현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낙인찍힌다.

이러한 사랑의 이중성이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의 통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남녀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잘못된 사랑의 통념들이 오늘도 많은 남녀를 사랑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1) 잘못된 사랑의 통념들

먼저 '사랑은 하나됨'이라는 통념이다. 이 통념은 또 몇가지의 행위를 유도하는데 우선 '배타성'을 들 수 있다.

“요즘 영철씨 보기가 왜 그리 힘들지요?” “한창 열애중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친구도 형제도 마다하고 오직 이성과의 만남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인격과 감정의 만남이며 따라서 현재의 사랑의 감정은 언젠가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즉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랑은 절대 영원할 수 없는 두 남녀간의 감성 관계를 영원한 것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인 동시에 그만큼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은 상대방의 사랑을 영원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더라도 사랑을 회복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어야 한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신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눈물을 삼켰으며 또 삼키고 있는가?

개인에 대한 사랑은 절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도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미련이 큰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욕구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노력과 의지에서만이 희망적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단 둘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폐쇄적일수록 인격적 관계로서의 발전은 불가능해진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상대방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가능하며 상대방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치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도 미술을 감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상대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유지란 상대방이 속해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예를 들면 동창회, 동아리, 산악회, 가족, 친족 등등) 또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함께 참여할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참모습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랑은 그만큼 눈물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랑은 하나됨’이라는 통념이 유도해 내는 또 한가지로 ‘눈에 보이는’ 하나됨을 들 수 있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영철이가 지연이가 좋아하는 돈까스만을 매일 먹어줄 때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영철이는 결혼식과 동시에 된장찌개만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결혼해 보니 속았다”고

들 하지만 속고 속인 것은 두 남녀가 아니며 두 남녀는 사회적 통념대로 움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됨에 유도되어, 영철이는 자신의 된장찌개를 포기함으로써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착각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강요당하는 또하나의 ‘눈에 보이는’ 하나됨으로 성관계를 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몸도 마음도 하나여야 하지 않느냐?”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뿐 아니라 “나는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므로” 자기 몸의 주인되기를 포기하는 여자도 모두가 성관계 자체에서 몸의 하나됨을 찾고 있으며 이는 바로 남성의 성기 중심의 성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하나됨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하나였다. 결국 남녀 모두를 살맛나지 않게 만들어 왔다. 남녀가 모두 살맛나는 하나됨이란, 영철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지연이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돈까스를 먹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된장찌개와 돈까스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의식 수준에서 찾아질 수 있다. 요컨대 주체성, 가치관, 개성이 분명한 개인끼리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개성을 존중해줄 줄 아는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됨’ 이어야 한다. 성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때 인간의 몸은 결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랑하는 남녀가 경험해 온 자기 혐오감이나 자기 분열증은 비로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사랑의 통념으로 ‘순수한 사랑은 플라토닉한 것’이라는

통념을 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죄의 근원이자 더러운 것으로 인식한 역사적인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하늘과 땅 중 어느 하나의 상실은 곧 우주의 상실을 의미하듯 인간에게 있어서도 육체와 정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열을 논할 수는 더 더욱 없는 것이다. 사랑(정신적 대화) 없는 성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성(육체적 대화) 없는 사랑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의 성이란 키스 포옹 성교 등 다양한 몸의 언어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성교는 다양한 성적 관계 중 일부에 속할 뿐이다. 성에 대해 사랑하는 남녀가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거부할 권리와 존중할 의무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성은 비로소 아편이 아니라 누룩으로서 사랑과 변증법적 관계로 진행될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성적 자율권을 갖지 못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성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절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성적 자율권의 상실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상실이며 따라서 이 때의 성적 행위는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지 상호적 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녀가 동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닐 때 그들간의 언어는 이미 대화가 아니며 한 편의 일방적인 명령체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2) 사랑을 위한 성

“이 세상에 오직 당신 밖에 없다”던 남녀가 결혼해서는 시들시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남녀의 합법적인 성을 결혼제도에 두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부는 자칫하면 성적 자율권을 포기하기 쉽다. 이는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며 따라서 ‘잠자리’를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이 부부 삶에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며 사랑이 비틀거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남녀에 대해 이중규범적인 성문화와 결혼제도로 인해 영원한 사랑과 즐거운 성을 꿈꾸는 많은 남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면서 결국은 남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문화에 일방적으로 걸려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뛰쳐 나와야만 한다. 남녀에게 달리 주어져 온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한 인간으로서 자기만의 개성에 대한 자긍심 갖기, 자기 분열증 또는 자기 혐오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율성 찾기와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대한 존중감 갖기, 성의 각본과 사랑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닌 늘 새로워지는 사랑 만들기,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속에서 즐거운 성과 영원한 사랑은 만날 수 있다.

김영희의 인형들이 닥종이로 만들었지만 닥종이가 아닌 것처럼 사랑은 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은 아니다. 즉 성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에 보탬이 되는 누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성의 다목적성 — 출산, 쾌락, 휴식, 대화의 개념 —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원하는가? 빼앗거나 뺏기는 사랑을 원하는가?

동생들 특히 아이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타고난 때부터 다른 것은
알려져있어 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하는 성격들과 한
쪽인 아이는 타고난 때부터 성격과 태도와 사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격 때문이다.

생명의 성

인류학자들이 여의, 남성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온 세계를 다
다니다가 유머를 찾아보니 나라와 문화에 따라 성격들이 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성의 미누스족은 오직 남성이 아이
들과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프리브랜드 섬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거른다.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도 안된다. 유머시
절의 유머 한디언들은 여자가 먼저 성적인 행동을 한다. 남자들은
일단 첫번 째를 본보기로 두어줌으로 보인다. 또 남성의 평등 사회에
사는 남성이 모든 직업을 맡을 지경이다.

이렇게 사회 문화에 따라 성격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에서
알려지는 일들마다 있어서 격정다움과 남성다움은 그와 중요하
지 않다. 다만 인간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문화
속에서 일러져만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중에 인간적인 것은 최고로
마음적인 것은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 모든 것은
마음을 심어준다.

구 성 애 성교육·상담 전문가

이렇게 보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남성은 인간적인 성격과 인간적인
성격을 배우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성격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공의명

대한민국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동등함 속의 차이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져 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타고날 때부터 다른 것은 생식기밖에 없다. ‘여자답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성역할과 관계된 차이는 타고날 때부터 다른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이 여성, 남성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온 세계를 다녀보고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 나라와 종족에 따라 성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해의 미누스족은 오직 남성만이 아이들과 놀고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 트리브랜드 섬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기른다.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도 안된다. 뉴멕시코의 주니 인디언들은 여성이 먼저, 성적인 행동을 한다. 남성들은 결혼 첫날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낸다. 또 남서태평양 사회에서는 남성이 꽃과 향수로 몸을 치장한다.

이렇게 사회 문화에 따라 성역할을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성에 있어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인간적인 ‘다움’ 이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중에 인간적인 것은 취하고 비인간적인 것은 버리고, 서로가 못가진 것을 배워, 보다 풍부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일이라 하겠다. 여성에게 요구되어 온 수동성과 의존성은 비인간적인 측면이고 부드러움과 섬세함 등은 남성도 배워야 할 내용이다. 남성에게는 적극성과 진취성을 배우고 공격성과 자기중심성 등은 다듬어야 할 사항이다.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조건에서는 올바른 성관점을 세울 수 없

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서로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격이 올라가는 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와 차별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앨범이 나왔다. 「발해를 꿈꾸며」와 「교실 이데아」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짧은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랩 음악은 원산지에서 저항음악인데,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육과 분단이라고 생각했단다. 노래 가사도 아이들의 현실을 실감있게 반영해, 우리 아들도 그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아이들을 비롯해 젊은이, 나 아줌마까지도 서태지를 좋아한다. 노래와 춤도 잘 추고 이제는 뜻까지 가졌다. 이런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 자신을 지극히 사랑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서태지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다리도 짧다. 그럼에도 열등감 없이 자신을 사랑하여 창의적인 일에 몰두한다.

짧은 다리와 긴 다리는 차이일 뿐이다. 다리가 짧다고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서로의 다리가 다르기에 서로를 빛낸다. 서태지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개성을 가졌기에 짧은 다리지만 다 좋아한다.

여성과 남성도 그렇다.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은 차이일 뿐이다.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는 몸이라고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서로가 다르기에, 즉 개성을 가졌기에 서로를 더 빛내주고, 서로

를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든 게 많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시켰고, 직장에서의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사회에서도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우습게 본다. 더욱이 지각없는 남성들은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까지 대하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 여성들도 당하고 찌들린 탓이겠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죄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남성으로 나고 싶다는 여고생이 70%를 넘는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일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설령 오기로, 자아를 실현해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다 해도 여유로운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렵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차별하는 것들을 고쳐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성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생명은 성 개념의 기본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생명이다. 정자와 난자, 수정, 임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도 아기는 생겨났다. 서로의 생식기가 다른 것을 보고 궁금해 하며 연구해서 점차 생명을 터득하게 되었다. 차츰 목적의식적으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관계를 하게도 되었다. 성에 있어 사랑과 쾌락의 내용까지 넓혀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삶의 한가운데는 생명의 성이 자리잡고 있다. 사랑의 열매로서의 생명, 핏줄을 잇고 가정을 완성하는 생명, 차세대로 인류사회를 유지, 발전시키

기까지 인간 삶과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기에 생명은 성 개념의 기본이어야 한다.

생명이 있어야 땃땃하다

흔히들 성에 대해 땃땃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한다. 성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려면 생명의 관점이 성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성은 아하게 낄낄거리거나 은밀하게 속삭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지하게 큰 소리로 토론회까지 할 수가 있다.

대학 시절, 짓궂은 남자 선배들이 재미삼아 음담패설을 한다. 허리가 튼튼해 하루밤에 몇번을 돌려도 되겠다느니 찢어진 우산이 어떻고, 개봉박두, 시사회를 가져야 한다느니, 무슨 말인지 몰라 멍청하게 앉아 있다 성희롱이라는 느낌을 받고서야 울면서 뛰어나간 일이 많았다. 우니까 더 재미있었던지 자꾸 한다. 우는 것도 오기가 나서 나중에는 초연한 듯 앉아 있었는데 급기야는 내가 선수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뭔가 성에 대해 당당하고, 있는 그대로 대하고 싶었는데 그런, 쾌락을 위주로 보는 분위기에선 당당할래야 당당할 수가 없었다. 직장에서도 학교, 모임 등에서 진한 음담패설이 오고갈 때가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질문도 많이 한다. 우는 여성, 화를 내는 여성, 같이 거드는 여성,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고 무시하는 여성 등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 어떨까 한다.

적극적으로 이야기 판에 참여하여 생명에 관한 얘기를 실컷 한

다. 아기 낳는 얘기, 진통에 대한 얘기, 낙태에 대한 얘기, 특히 낙태할 때 3개월 된 태아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얘기, 강간을 당한 여성이 임신해서 낙태한 얘기, 후유증으로 정신병이 된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이다. 어느새 야한 얘기들이 힘을 잃고 진지한 성문제 토론으로 판이 바뀐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생명의 관점이 빠진 성문화

남성들을 미워할 것도 없다. 우리 남성들이 접하는 성문화는 주로 감각적 쾌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단지 그렇게 가볍게 재미삼아 내뱉는 얘기들이 실체는 엄청난 상처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우리 여성이 먼저 준비되어 잘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의 성문화는 성에 대해 생명의 관점을 심어주지 않는다. 야한 성인용 비디오나 영화를 보면서 뜨거운 장면들이 나올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주로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렇게 자주 성행위를 하면 임신이 될텐데, 낳을 형편이 아니면 낙태를 할텐데.' 하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아기를 낳아 본 이쯤마나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외에는 재미 위주로 볼 것이다.

성행위의 의미는 생명 사랑 쾌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주로 쾌락만 부각되지 생명, 사랑은 빠지는 추세이다. 특히 생명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 결과로 낙태와 아기수출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동안 최고 많이 하는 날, 낙태 건수는 무려 1만 명이나 된다

고 한다. 1년 건수가 365만 명은 안된다 치더라도 평균 200만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정부 통계만으로도 1년에 150만 명이라 한다. 하루밤만 사고 나면 뱃속에 아기가 5천 명이나 죽어 있는 것이다. 입양으로 일컬어지는 아기수출 또한 몇십만 명에 달한다. 6공화국에서만 6만 명을 입양시켰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생명과 낙태

생명의 관점이 빠진 성의 결과는 엄청나다.

3개월(12주)된 태아를 낙태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 작은 생명이 죽음을 감지하고 살인 기구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옆으로 피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얼마나 발악을 했던지 1분에 140번 뛰어야 할 맥박수가 200번이나 뛰고 있다. 드디어 흡입기라는, 몸부위를 빨아당기는 기구가 태아몸에 닿자 마자 '악' 하고 소리를 지르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안보이는 것도 엄연히 사실인 것이다. 침단을 향해가는 현대.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서 지행해 나갈 방향은 무엇일까?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기 전의 생명조차 죽이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태계 파괴, 희귀종 멸종엔 흥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프랑스 병원을 생각한다

제작년 어느 프랑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성공한 수술이 있었는데 자궁 안에서 태아를 수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태아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살게 하면서 자궁 밖에서 수술했었는데 아무래도 아기에게는 자궁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시도해 본 것이다. 6개월된 태아가 횡경막에 이상이 있었는데 고도의 기술과 집념으로 수술에 성공한 것이다. 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거리기도 하면서 한편 쉽게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했다. 똑같이 귀중한 아이들일텐데..... 한편에서는 태아를 존중해서 최대의 노력과 기술을 쏟은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태아의 존재를 저주해서 죽이는 것일게다. 어느 것이 옳은 일일까?

여성 몸의 후유증

아기를 죽인다는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도 문제지만 낙태로 인한 여성 몸의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전신적 허약, 자연 유산, 염증으로 인한 자궁외 임신, 불임 등. 불임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성들의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임신과 낙태를 계기로 남성과 헤어지게 된 여성에게는 심리적 상처 또한 크다. 원망과 증오,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 어떤 여성은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술집에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다.

생활 깊숙히 자리한 생명의 성은 이렇게 몸과 마음 모든면에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명을 만들고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은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 기쁨과 힘이 된다. 우리 어머니들은 고생을 낙으로 삼을 정도로 생명에 빠져 일생을 보내셨다. 젊은이들은 답답하다고 혀를 차겠지만 그만큼 생명이 끄는 힘이 강한 것이다. 기쁘고 신비롭고 힘을 주는 생명이 어느새 저주와 원망, 걸림돌과 방해꾼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이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라도 생명의 의미를 바로 새겨, 기쁘고 즐거운 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관점을 세우기 위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보자.

1. 생식기 개념

생명의 관점을 갖는데 첫 출발을 몸에 대해 생식기 개념을 갖는 것이다.

아기를 낳은 아줌마들은 아가씨들보다 벗은 몸에 대해 덜 부끄러워한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주저없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며 몸에 대한 얘기도 쉽게 한다.

산부인과에서 하루종일 말하는 것이 생식기에 대한 얘기이다. 남성 여성이 섞여 일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줌마들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어느새 생명과 관계된 몸이라는 느낌이 있고 의료인들은 이미 생식기라는 관점이 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생식기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건전한 몸으로 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점점 사회 문화가 몸에 대해 감각기관으로서 가치를 더 두고 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도 살을 뺀다고 난리고 여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미스 코리아같은 몸매 가꾸기이다. 보기에 좋고 만지기에 탄력적인 감각기관으로서의 몸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남성들 앞에, 쪽 빠진 몸매의 여성이 걸어가면 '휴' 하며 휘파람을 부는데 그때의 반응은 감각기관으로 마음에 땡긴다는 뜻일게다.

뚱뚱한 게 좋다는 건 아니다. 생명과 관계된 몸으로 건강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풍토가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 몸을 앞으로 아기를 낳을 몸으로, 이미 아기를 낳은 몸으로 대한다면 장난스럽거나 눈요기감으로 생각되진 않을 것이다.

생명과 관계된 생식기로 또한 생생하고 탄력적인 감각적인 몸으로 조화롭게 대하고 가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생식기 명칭을 바로 쓰자

명칭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데 중요하다.

일간지에 나오는 소설이나 황색 잡지들을 보면 생식기를 지칭하

는데 문제가 많다. 그녀의 깊은 그곳, 숲속을 헤치며, 꽃꽂이를 잘하네, 우뚝 선 바위, 페니스 등. 감각을 돋우기 위해 애를 쓰거나 아니면 성의 원산지가 미국인 양 영어로 쓰고 있다.

진지하고도 자연스런 명칭을 쓰자.

흔히 아이들에게 ‘고추, 잠지’라고 한다.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먹는 고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할머니는 아주 헛갈려 쓰고 있다. 손자보고 고추 좀 따달라고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또, 또……계속 이러면 나중에 바람피는 건 아닐까?

순수한 우리 말이 있긴 하다. ○지, ○지.

아들이 4살 때 생식기를 만지길래, 명칭을 써서 설명을 하려는데, 우리 말을 쓰려니까 발음이 안 나왔다. 아마 성문화가 혼란스러워 우리말을 더럽혔던 것 같다. 문화를 정화시켜 나중에 찾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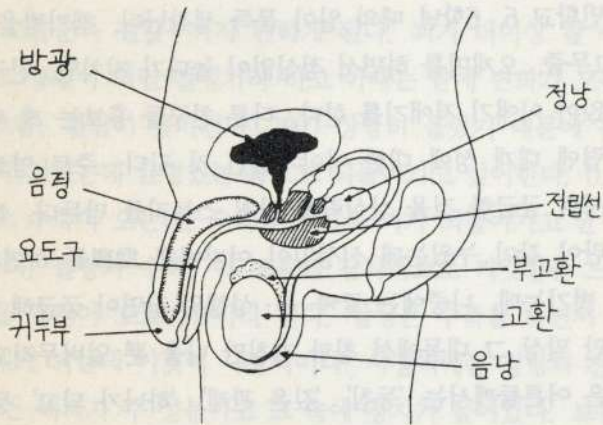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쓰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남성 생식기는 음경 고환 음낭 정낭 이렇게 부르고, 여성 생식기는 음순 음핵 요도 질입구 질 자궁 난관 난소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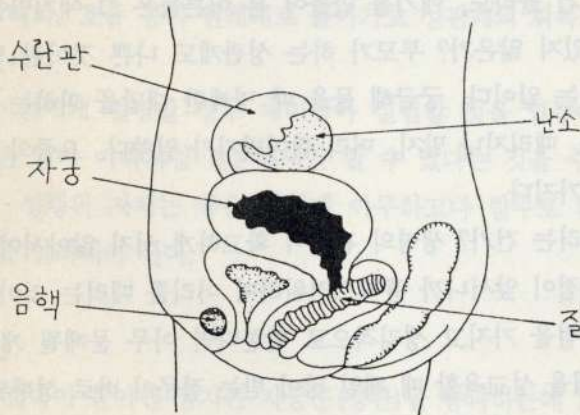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단순한 명칭만이 아니라 그 기능까지 설명해 주는데 진지하고 자연스럽게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어디로 낳았어?” 할 때, 부모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말보다도 엄마의 태도에서 느낌을 먼저 전달받기 때문이다. “응, 궁금하지? 어디냐면 엄마 몸에 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래. 질은 중요한 곳이야. 아빠가 주는 아기씨를 처음

●●●●●
생명의 성

으로 받아내는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아기가 다 큰 다음에 밖으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지나오는 길이기도 해.” 지나치게 깔끔을 떨어도 좋지 않고 장난스럽게 해도 안좋다.



〈남성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3. 임신에 대하여

성관계 설명

국민학교 5, 6학년 때의 일이 문득 생각난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고무줄, 오재미를 하면서 정신없이 놀다가 지치면, 친구들끼리 모여앉아 이야기 저애기를 한다. 다른 친구들 홍보는 게 시작이고 끝무렵엔 대개 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 주로 영화배우를 등장시켜 궁금한 것을 상상력에 맞춰 스토리를 만든다. 신성일과 엄앵란이 같이 누웠는데 신성일이 여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손은 옷을 벗기는데, 나중에는 글썄…… 성행위 장면이 궁금해 한 얘기였건만 막상 그 대목에선 침과 기침만 나올 뿐 얼버무리고 만다. 점잖은 어른들께서는 ‘동침’ ‘깊은 관계’ ‘하나가 되고’ 등 그 이상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정말 궁금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얘기를 만들어 본 어른들은 그 얘기만큼은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부모가 하는 성관계도 나쁜 것이란 말인가? 참 웃기는 일이다. 궁금해 물을 때 명쾌한 대답을 피하는 것까지는 좋다. 때리지나 말지, 머리 쥐어박기가 일쑤다. 요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는 건가? 생명의 관점이 확고하게 서지 않아서이다. 쾌락의 관점이 앞서니까 흥척스러워하며 머리를 때리는 것이다.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생리적으로 말한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국민학생을 성교육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성행위에 대한 질문이다. 대답은 이렇게 한다.

여성의 질 속에 남성의 음경이 들어와 마찰을 하면 생식기 주변으로 피가 모이게 된다. 피가 모여드는 것을 받기한다고 한다. 처음엔 남성의 음경에, 여성은 음핵부터 피가 차오른다. 점차 피가 더 차오르는데 이때를 흥분기, 고조기라 하고 남성은 음낭까지 여성은 소음순과 질입구까지 변하게 된다. 피가 더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충혈이 되면 절정기라 하고 이때는 몸에 변화가 오는데 맥박, 호흡, 혈압이 높아진다. 피가 상당히 몰렸기 때문에 몸이 불균형이 되었는데 균형있는 몸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0.8초 간격으로 수축이 오는데, 수축을 계기로 피가 되돌아가고 균형을 찾게 된다. 절정과 수축. 이 즈음엔 감각적으로 짜릿함을 느끼는데 이것을 일컬어 오르가즘이라 한다. 남성은 수축을 하면서 액체를 쏟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사정액이다. 사정액에는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든 액체가 주 성분이고 그 속에 정자가 들어있다. 보통 2~5cc 정도의 양이며 정자는 2~3억마리가 들어있다. 몸이 균형있게 되면 맥박, 호흡 등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성관계의 회복기도 끝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경우 재미삼아 실험할 것을 엄두에 두어서 이것은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성행위 자체는 좋은 것인데 아무하고나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줘야 한다.

임신

질 깊숙이 쏟아낸 정자는 자궁문(경관)을 통과하는데 70% 정도는 이 과정에서 죽는다. 자궁문을 통과한 정자는 자궁을 거치고

난관을 거쳐 주로 난관 끝부분 팽대부에서 난자를 만나게 된다. 난자는 제일 처음 도착한 가장 씩씩한 정자 하나만을 받아들인데, 정자를 받아들이면서 정자의 꼬리는 잘라버리고 얼른 막을 닫는다. 난자에 들어온 정자는 난자핵과 결합한다. 수정이 된 것이다. 수정란은 22쌍(44개)의 보통 염색체와 1쌍(2개)의 성염색체를 가지므로 새 생명의 성별과 모든 유전성의 특징도 정해지게 된다. 수정된 난자는 이후 2-4-6-8-의 세포로 계속 분열된다. 세포분열을 하면서 자궁쪽으로 이동하는데 3~4일 정도가 되면 자궁에 도착하고 1주일이 되면 자궁 내막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 이것을 착상이라 한다. 착상할 때 어떤 사람은 약간의 출혈이 있기도 하다. 예정된 생리 시작일보다 1주일쯤 앞당겨 약간의 출혈이 있다면 임신을 의심해 봐야 한다.

수정된 지 4~8주간에 수정란은 계속 세포분열하여 몸의 중요한 계통과 내장이 구분되며 사람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뇌신경 계통, 위장 계통, 심장과 혈관, 골격을 이룬다.

기다리는 아기, 준비된 임신

보통 임신 2~3개월에 해당되는 이 기간에 특히 약물에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기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기초는 이때 다 이루어지고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조직이 발육되는 기간이다.

아기를 받으면서 기형아도 많이 받았는데 뇌가 없는 아이(무뇌아)가 제일 많았다.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70%고, 다음으로 는 약물이 많은데(약 20%), 산모에게 물어봤을 때, 일상적인 평

범한 약들이었다.

까스명수, 활명수, 감기 몸살약, 피부병 약, 멀미약, 한약 등.

주로 임신 증상과 관련된 약이라 할 수 있다. 임신 초기 속이 거북하고 쓰리며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기도 하다. 임신중 호르몬의 변화로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 기다리던 임신이 아닐 경우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다. 원하고 준비된 임신일 때는 조금만 이상해도 임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형의 확률이 적다 하겠다. 요즈음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기형, 장애아가 많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찌든 공해 속에 살면서 그나마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래도 기다리는 아기, 준비된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라나는 태아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태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도미니크 퍼플러,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D 아담스, 스웨덴 칼로린스 연구소의 청각 생리학자인 에릭 웨덴브르크,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립 산원대학원의 앨버트 릴리 및 그 아내인 마가레트 릴리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해 밝혀진 것은 태아는 듣고 이해하고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다.

2개월된 태아는 어머니의 배를 찌르거나 차면서 자기가 좋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등 원시적인 신체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4개월된 태아는 웃거나 찡그리면서 얼굴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조건반사를 습득하기도 한다.

5~6개월된 태아는 생후 1살이 된 아이와 비슷할 정도로 촉각이 발달하는데 머리를 건드리면 머리를 움직이고 차가운 물을 싫어한다. 또한 사카린을 탄 양수를 자주 마시는 것을 보면 미각도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후가 되면 태아는 시종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엄마의 규칙적인 심장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밖에서 나는 소리도 조용히 들린다고 한다.

도미니크 퍼플러 교수는 태아에게 의식이 싹트는 시기는 태생 7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라고 한다.

실험으로 뒷받침되는 태교의 중요성

태아의 감수성은 어머니의 호르몬에 의해 싹튼다고 한다.

어머니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카타콜아민(자율신경계통의 전달작용을 담당하는 물질로서 호르몬의 일종)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시 직접적으로는 태아 육체에 영향을 주지만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자아 및 감정이라는 정신적인 현상을 극히 초보적인 형태지만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신중에 남편이 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속을 썩이거나 불안하게 하면 아이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태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어머니의 정신,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위로하며 대화하면서 애정을 나눌 때 아이는 편안해질 수 있다.

임신을 한 여성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겠다. 준비없이 생긴 아이거나 실수로 생겼다는 아이라 하더라도 임신이 확인되면 얼른 축하와 기쁨의 마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어른들이 어려운 것이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얼마전 형편이 어려운 후배가 둘째 아이를 임신해 병원에 갔는데 4개월에 접어든 태아가 쌍둥이라는 것이다. 후배는 충격으로 울고 있었다. 나도 처음 듣는 순간 “어머, 어찌니!” 하고 말았다. 얼른 정신을 차린 나는 입에 침도 마르기 전, “애, 울지 마. 우는 거 아냐! 축하한다. 아이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웃어라.” 했다.

울다가 웃으려는 후배의 얼굴이 과상망척했지만 웃어야 되는 것이다.

4. 출산의 과정

수축 이완 견축

아기 낳을 때(분만예정일 10일 전후)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진통이 오게 된다. 불규칙한 수축이야 벌써부터 있었지만 규칙적이고 아픔을 느끼는 수축을 진통이라 하는 것이다. 처음엔 15~20분에 한 번씩 온다. 수축이란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궁 근육 세

포가 짧아지면서 굽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배를 만져보면 돌처럼 단단하다. 이때 아픔을 느낀다. 수축 후에는 이완이 되는데 이완이란 자궁 근육이 다시 길어지는 것이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자궁세포의 길이는 원래보다 더 짧아지는 것인데 자궁 윗부분은 점점 더 짧아지고 두꺼워진다. 이것을 견축이라 하는데 이 견축 활동을 통해 자궁 아랫부분을 점점 위로 잡아당겨 자궁문(경관)을 열게 된다. 가끔씩 짧게 아프던 배가 자주 길게 아파오면서 자궁문은 점점 열리게 된다.

자궁문이 열린다

1cm, 2cm, 3cm...10cm가 열려야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자궁문이 1cm에서 5cm 열릴 때까지는 서서히 아파오지만 5cm에서 10cm까지 열릴 때가 가장 아픈데 10분에 4~5번이나 수축이 오며, 아픈 기간도 40~50초나 된다.

이때 분만실에서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

너무 아픈 나머지 침대에서 내려와 달리기를 하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면회하러 들어온 남편에게 욕을 하는 부인도 있다. 옆에서 배를 만져주고 있노라면 내 팔을 붙잡고 비틀어 멍들기 일수다. 부인이 아파하는 것을 본 어떤 순진한 남편은 같이 울기도 한다. 이런 남편은 나중에 분만 후에 아기를 보여주려 보호자를 부르면 뛰어와서 먼저 묻는 말이 “산모는 건강합니까?”이다. 그런 남성은 남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인간성이 좋아보인다. 그런데 면회 때는 술먹으러 가서 없고 술먹고 와서는 늘어지게 자고 있는 남성의 경우 애기 낳았다고 하면 다짜고짜 애기가 뭐냐고 묻는다.

인간이 좀 안 돼 보인다. 같이 만든 아기, 같이 낳을 일이다.

첫아이를 낳을 때 산모는 보통 10시간 이상을 아파야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사람마다 조금 빨리 혹은 꼬박 2일간 아픈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아파야만 아기가 나오는 것이다.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기 심장박동 수가 느려지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힘을 줘야 한다

자궁문이 10cm 열리고 아기 머리가 자궁문까지 내려오면 저절로 힘이 주어진다. 이때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줘야 한다. 온 힘을 모아 항문 근처 회음부로 보내야 하는데 어떤 산모는 얼굴로 힘을 주고 있다. 얼굴만 벌개지고 숨만 찰 뿐이지 아기를 낳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올바르게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자궁문은 다 열렸는데 아기 머리가 내려오지 않았거나 아기 머리도 다 내려왔는데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할 때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산모가 밑으로 힘을 주면 주는대로 아기의 까만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성의 질입구는 밀려 내려오는 아기 머리의 압박으로 인해 위로 달려올라가 있다. 그 사이로 아기 머리가 보이는 것이다. 처음 아기 머리는 콩만큼 보이다가 힘줄 때마다 조금씩 내려와 동전만큼, 탕자만큼, 굴만큼 보이기 시작한다. 자궁이 수축할 때 힘이 주어지는데 수축 후 이완이 되면 힘도 주어지지 않고 아기는 다시 속으로 들어간다. 다음 수축 때 다시 더 큰 힘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첫아이인 경우 보통 1시간 내외로 힘을 줘야 아기를 낳을 수 있

다.

순간순간이 박진감 넘치는 운동인 것이다. 산모에게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역사적 순간인 것이고!

아기가 나온다

아기가 나오려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산모가 다리를 벌렸을 때 한가운데 까만 아기 머리만 박혀 있는 모습이다. 생식기는 밀쳐져서 보이지 않고 큰 배 크기의 아기 머리만 보일 뿐이다. 흔히 들 포르노 비디오에서 보이는 여성 생식기를 상상할 지 모르나 아기가 나오는 장면의 여성 생식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신기하고 장엄한 느낌이라 하겠다.

이제 아기가 나온다. 머리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다.

산모와 아기 받는 사람이 호흡을 맞춰 조금씩 조금씩 힘을 주며 머리를 받아낸다. 머리 꼭대기부터 나오기 시작해 얼굴이 나오고 드디어 턱까지 나온다. 턱까지 나오면 대개는 자궁의 수축이 없어지고 이완이 된다. 수축만 없어지면 아기를 낳는 중간이라도 쉬어야 한다. 다음 수축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기는 얼굴만 밖에 나온 채 찡그리며 있다. 수축이 다시 오면 이제는 어깨 양쪽을 잘 빼낸 후 몸통을 조심스럽게 빼낸다. 아기가 엉덩이까지 나오게 되면 가장 두꺼운 부분이 나온 것이므로 두 다리가 쑥 빠지듯이 나오게 된다. 탯줄을 단 채로 아기가 다 나온 것이다.

생명의 신비

밖에 나온 아기는 처음으로 폐호흡을 하게 된다.

숨을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울음을 쏟아낸다. 아기가 분만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마의 10배나 된다니 올만도 하다. 무엇에 놀랐는지 아기는 두 팔을 깜짝깜짝 벌렸다 웅크린다. 아기 받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꼭 붙들기도 한다.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는다. 빨개지며 우는 아기, 발버둥치는 모습.....

어느새 생명의 신비로움에 모두들 얼굴이 맑아진다.

탯줄을 끊고 처리를 한 후 아기를 엄마에게 보여준다.

아기를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소리내어 엉엉 우는 엄마도 있다. 아들 딸 그런 차원이 아니다. 존귀한 생명 앞에서 그냥 흘러나는 샘같은 눈물이라.

생명을 잉태해서부터 진통을 이겨내기까지 느끼고 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녹아든 그런 것.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짐하는 그런 것.

사랑하는 남편과 연이 닿은 핏줄을 한데 묶어놓은 것 같은 엄청난 뿌듯함.

이제 세상을 얻은 느낌이다.

아기를 목욕실로 옮긴 후 탯줄로 이어져 있던 아기의 기반인 태반을 분만한다.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고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태반까지 제대로 나와야 분만이 완결되는 것이다.

엄마는 살포한 미소를 머금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5. 진통과 모성의 의미

진통은 팔자가 아니라 땃가다

진통에 대한 얘기를 실감있게 하다보면 얘기를 듣고 있는 여성들의 얼굴이 이상해진다.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끔찍해 한다. 아기를 낳은 아줌마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긴 얼굴이 되기도 하고 남성들은 신기해 하면서도 여성을 동정하는 표정이 된다.

아줌마들에게 물어보자. 진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통보다 더 센 힘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은 기쁨과 신비감이다. 생명의 힘이 진통을 이겨낸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진통을 잊을 정도로 생명의 힘은 강력하다. 더욱이 생명은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백일이 되면 몸을 뒤집고 웅알이를 하며 돌이 되면 서고 걸으며 무럭무럭 자라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신기하고 기특하기만 하다. 자신이 낳은 생명을 위해 예전에 없던 힘까지 나온다. 생명의 변화와 성숙의 시간으로 본다면 진통의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팔자 땃을 하지 말자.

순간의 진통이 괴로와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 너무 아프다.” 하며 울부짖을 때 대부분의 엄마들이 “조금만 참아라. 여자로 태어난 죄지! 어찌겠니.” 하고 대답한다. 이런 절박할 때의 대답은 ‘여자 팔자’라는

단어를 뇌리에 박아놓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

“조금만 참아라. 귀중한 생명을 얻는 게 그렇게 쉽겠니? 생명을 얻는 댓가란다.”

여자로 태어난 복

나는 아기를 낳고 나서야 여자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 자부심의 근거는 고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숙의 관점에서다. 아기를 낳고 나서 난 너무나 변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첫째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었다. 진통을 겪는 동안 친정 어머니를 생각했다. 나를, 내 동생까지 4남매를 이렇게 낳으셨겠구나. 시어머니도 생각났다. 8명을 나서 3명은 죽고...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할만 했다.

둘째,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여성은 경쟁의 상대로만 보였다. 남자 친구가 더 많았고 마치 나는 다른 종류처럼 다른 여성을 무시했다. 그러던 것이 1살짜리 여자 아이만 봐도 ‘어머, 장차 아기 낳을 몸’, 할머니를 보면 ‘어머 애기 많이 낳으셨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여성 앞에 ‘우리’가 붙어 ‘우리 여성’이 되었다.

아기를 낳을 우리 여성들 눈에 눈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의 여성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온몸으로 평등을 갈구하게 되었다.

육교 위에 엮드리고 있는 거지를 보면 이전엔 사회과학적 사고

를 한답시고 논리를 앞세웠었다.

내가 저 거지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어디로 가지? 아마 두목에게 갈거야. 그 두목은 그 돈을 어디에 쓰지? 아마 유흥비에 쓸거야. 책임량을 못했다고 맞기는 하겠지만 내 돈을 그런데다 쓸 수야 없지. 고로 돈을 안 준다.

아기를 낳은 후 육교의 거지를 보면 우선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광경이 떠오른다. 응애응애 울던 모습.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

가슴이 미어져 온다.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였을 저 아이는 어찌해서 육교에 앉아 있는 것일까? 아이 엄마는? 다 같이 벌거벗고 태어나서 누구는 돌 선물로 제주도 땅을 물려받고 누구는 집도 없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자신의 노력으로 빈부차가 난다면 그거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잠재력이 무한한 어린아이에게겐 기회와 조건이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터득되는 느낌과 마음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 온몸에 변화가 있듯이 온몸으로 터득되는 삶의 느낌들! 여자로 태어난 복이다.

모성의 참뜻

모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얼까?

자신보다 자녀(생명, 타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체질화된 성질이 아닐까?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모성은 체득된다.

임신 후기가 되면 태아는 많이 커져 배가 부른다. 부부 성관계를 하면 아이가 싫어한다. 태아를 누르거나 압박을 가하면 아이가 발로 차거나 배가 뚫뚫 뭉쳐진다. 대부분의 산모는 태아에 신경이 써져 성욕도 없어진다 한다.

임신중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남편이 물건을 던진다. 그때 산모는 날아오는 물건을 막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보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배로 가져간다.

평소에 잠귀가 어두운 여성이 아이의 신음소리에도 눈을 번쩍 뜬다.

건널목에서 노는 자녀를 향해 기차가 달려들 때 자신도 모르게 뛰어나가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이 죽어간다.

‘우정의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부를 때 다 큰 장정들이 울먹인다. 왜 그럴까? 고된 군대 생활에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제끼고 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 그리움이 북받쳐오르는 것일게다.

모성은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품성이다. 모두 배우고 존중해야 할 마음이다.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옆에 있는 훌륭한 사람인 어머니를 우리 사회는 존중하지 않는다. 어버이 날에만 요란을 떨 뿐 어머니가 될 우리 여성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짓밟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여성은 여

성으로 태어남을 원망하기도 한다. 차별과 억압이 잘못된 것이지만 모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모성과 차별을 혼동하지 말자. 모성으로서의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여성이 모성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모성이어서는 안된다. 임신하고 출산한 모든 힘을 자기 자녀에게만 쏟을 때 나라를 망치는 모성이 된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올바른 사회의식과 결합된 모성이 될 때에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민족의 모성이 될 수 있다.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이라도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모성으로 존경받는다.

부성(父性)도 만든다

남성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성숙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난 후일 것 같다.

“아빠, 아빠” 하며 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 돈 많이 벌어서 잘 키우고 싶다. 갓난애 때는 몰랐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막중해진다. 어떤 직장이고 오래 다니려면 성질을 죽여야 하고 자존심도 꺾여야 한다. 옛날 성질 다 죽었다 한다. 고집과 허세가 가라앉고 인내가 싹튼다. 집마련, 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혹하게 뛰어야 한다. 세상살이의 쓴 맛, 단 맛을 다 보게 된다. 일가견이 서진다. 어느새 전문성도 생기고 지위도 올라간다.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나 귀중하다. 어머니가 피와 살을 주는 애뜻함의 소중함이라면 아버지는 뼈대를 만들어

주는 든든함의 귀중함이다. 어머니보다 사회성이 높아 자녀들에게 사회정치적 힘을 불어넣어 준다.

한 생명의 탄생은 남성을 아버지로 여성을 어머니로 변화, 성숙시킨다.

놀라운 생명의 힘이다.

차세대를 잇는다

부부가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부부의 자녀가 된다. 한편 그 자녀는 또래의 아이들과 합해져 차세대를 이룬다.

인류사회는 무엇으로 유지될까? 차세대로 존속, 유지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고리가 되어 유지되는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인구 변동이 생긴다. 지금의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낳아 그때쯤이면 지금의 사회 구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다 죽으면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세대에 변동이 생기면 인류사회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인류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발전은 무엇으로 되나?

차세대가 고리가 되어 인류사회를 발전시킨다. 컴퓨터가 급속히 발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컴퓨터 스스로가 발전하진 않는다. 차세대가 사슬이 되어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의 이음새는 바로 차세대다. 그래서 어린이를 미래의 꽃이라 하지 않던가?

차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이다.

생식기가 다른 여성과 남성이 육체적 관계를 맺어 차세대를 만

든다고 할 때 이런 생명의 성은 야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심오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이라 할 수 있겠다.

6. 몸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자

노리개가 된 여성 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건수가 1년에 25만 명에 이른다.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가 당하는 건수는 1년에 8만 명에 달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어찌다가 터지는 단계를 넘어섰다.

여성 몸을 노리개로 보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 노리개는 새것일수록 인기가 좋은데 어린이 몸이 새 노리개로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 머릿속에 무엇이 새겨지는가?

나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여성운동을 하는 동료들과 같이 포르노 비디오를 보았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는 길에 지나가는 남성을 보게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보면서 인상을 살폈던 것 같다. 비디오를 보고 길에 나오자 나는 지나가는 남성들을 보면서 벗은 몸의 생식기를 연상하며 보게 되었다. 3일 정도는 그랬던 것 같다. 바빴으니 망정이지 할 일 없는 속에 자주 그

런 비디오를 본다면 아주 세뇌가 될 것도 같았다.

포르노 비디오의 문제점은 성에 있어 감각적인 면만을 집중시켜 성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있다. 영화는 성에 있어 인격이 오고가 는 사랑이 내용이 어설프게라도 담겨져 있고 간혹 애기와 관련된 생명의 내용도 들어있다. 내용이 왜곡되었더라도 크게 균형을 깨 지는 않는다. 음란 비디오는 그런 내용을 다 빼버린다. 감정 사랑 임신 피임 인격... 이런 것은 귀찮을 뿐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갖 가지의 성행위만 보여준다. 강렬한 행위의 장면은 오래도록 머리 에 남아있다.

사람을 성기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세뇌가 되면 사람을 인격이 빠진 노리개로 보게 만들며 어느새 상식도 없 어지게 한다. 보은이의 의붓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가?

노리개로 보는 성문화 속에선 어린이도 무사할 리 없다.

여성 몸은 아기를 낳는 몸

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여성을 보호해야 함은 여성이 연약해서가 아니다. 누구보다 강 인하다.

어머니가 될 모성이기에 평소부터 건강해야 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어머니로서 건강해야 한다. 남성들이 장난치고 폭행을 하 는 것은 '인격'은 고사하고 '생명' '어머니'의 개념조차 없기 때문 이다. 남성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여성 몸인데 말이다.

여성 스스로도 아기를 낳는 몸으로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재미와 향락에 몸을 맡기면 아기 낳을 몸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은 체질상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난 이렇게 가르친다.

“남자 어른 중에는 다른 것은 다 훌륭한데 여성 몸에 대해서는 ‘장난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속옷에 손을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 생각하는 것은 고쳐줘야지요? ‘아저씨, 만지지 마세요. 난 앞으로 애기 낳을 몸이에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녜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해 그만둘 수 있어요.”

욕망덩어리로 전락한 남성 몸

많은 성문화 매체들은 남성을 욕망에 허덕이며 침을 흘리는 동물로 그리고 있다. 홍콩에서 들어온 카드를 보면 전나에 가까운 여성들이 갖가지 자세로 카드 중앙에 버티고 있다. 카드를 치면서 여성의 이곳저곳을 만지는 상상을 훈련시키는 듯하다. 성이 상품으로 진열된 남성의 생활권에는 남성이 욕망덩어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남성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 황진이를 이겨낸 서경덕 같은 남성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자각하지 못한 남성들 대부분은 아직도 그 물에서 놀고 있긴 하다. 어느 깔끔한 성격의 남편은 더러운 사회 성문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의처증이 되고 말았다. 술만 먹으면 부인을 윤락여성으로 대하며 더럽다 하고 불을 지르려 한다. 인격과 결합된 성의 믿음이 깨진 상처는 남성에게도 남는 것이다.

남성의 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은 여성과 달라 성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성보다 충동적이고, 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여성들의 옷차림과 자세에 따라 충동이 유발된다는 것에 대해 한편 일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성욕은 뇌의 연상 작용을 통해 의식,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물은 성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성호르몬의 작용조차 일정부분 의식, 인식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고유한 그래서 인간다운, 욕망의 조절을 훈련하여 더 높은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는 데 있다. 결혼할 맘도 없이 성관계를 유도해 임신을 시켜놓고도, 순간의 실수, 약간의 실수, 술김에...를 연발하는 남성들의 생각은 남성은 원래 욕망과 충동의 몸이라는 것일 게다. 있던 욕망을 푼 것뿐,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편리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낙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안 죽으려는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여성 몸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연상해서 의식 인식한다면 제대로 된 성욕이 자리잡힐 것이다.

남성 몸은 아기를 만드는 몸

아기는 여성 혼자서 만들 수 없다. 남성의 정자(아기씨)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욕망만 푸는 몸이 아니라 아기씨를 뿌리는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성 몸도 생명과 관련된 몸이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흡연과 인스턴트 식품은 무정자증과 비활동성 정자를 만들기도 한다.

몽정에 대해 질문하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몽정은 중요한 거야. 아기씨가 영글어 흘러 넘친 거니까. 몽정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너를 낳은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흥분할만큼 기쁜 일이지만 한편 책임감도 따르는 일이지. 앞으로 네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해.”

생명을 책임지고, 사랑과 일치할 때에야 성적 쾌락은 온전한 것이 된다. 생명 사랑 쾌락의 조화로운 성개념을 확립하여 인간성의 품격을 높여나가야 한다. 균형있는 성의 출발은 바로 생활 한가운데 서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생명의 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하겠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록하
 록하고 여성이 기억하는 여성
 을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전화 266-0467 팩스 266-0467